도자회화로 표현한 우리문화재의 아름다움

최원선 개인전 'Cherish'
갤러리아리수 11월 3~9일

경천사지10층석탑 등 우리문화재 소재
우리문화재 도판에 새긴 작품 40여 점
도구로 물감 바른 도판 긁어 형체 묘사
수백, 수만 번의 선들 겹쳐져 작품완성
완성 그림 유약 입혀 고온 가마서 구워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과거 지나간 것의 흔적, 옛 건물, 오랜 세월을 지나온 유물들에는 혼이 담겨있다. 그런 것들은 우연히 때로는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남겨지기도 한다. 이들 중 개인적인 것은 추억이라 부르며 국가나 인류의 역사적인 것들은 전통이라고 부른다. 오래된 사진 속의 기억들 그리고 사라진 사람들에게서 남겨진 것들, 이들 중 우리의 역사 속에 또는 개인적으로 기억되어야 할, 소중히 간직하고 전해져야 하는 것들이 있다."

우리문화재의 아름다움을 모티브로 하는 전시다. 도자회화 영역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는 최원선 작가가 11월 3일부터 9일까지 서울 인사동 아리수갤러리에서 개인전 'Cherish'를 개최한다. 작가는 소중한 우리문화재 이미지를 도판에 새긴 도자회화 작품 40여 점을 선보인다.

도자회화는 다른 회화에 비해 보존성이 좋아 오랜 시간 동안 형태와 색이 변하지 않는다. 작가는 소중한 것을 보관하듯 오래된 건물, 고궁, 유물 등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그 안에 있을 우리만의 혼을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캔버스가 아닌 도판에 새긴 우리문화재는 더욱 우아하게 빛난다.

△작품 '경천사지10층석탑 Ⅰ·Ⅱ·Ⅲ'의 경천사지10층석탑(국보 제86호)은 고려시대의 탑으로 국립중앙박물관 1층 로비에 가장 높고 넓은 공간에 설치돼 있다. 규모에서 느껴지는 웅장함과 위엄이 대단하며 많은 이야기도 담겨져 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크게 손상되어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부분도 있지만 탑은 아직도 관객을 압도하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작가는 탑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아픔 속에서도 보이는 아름다움을 보여주고자 했다.

△작품 '경회루 측면'의 경회루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건물이다. 잔잔한 호수와 함께 완성도 높은 구도를 보여주는 측면의 경회루를 한 폭의 풍경화처럼 단아한 모습으로 도판에 옮겼다.

△'경복궁 지붕'은 경복궁의 재미있는 조각들을 작품으로 연결한 것으로 작품 속의 잡상은 궁궐지붕 처마 끝을 장식하는 흙으로 만든 일종의 장식기와다. 동물모양을 하고 있는 잡상은 장식적인 역할과 함께 살(煞)을 막아준다는 주술적인 의미도 지니고 있다. 단조로워 보일 수 있는 지붕을 아름답게 장식해 주면서 좋은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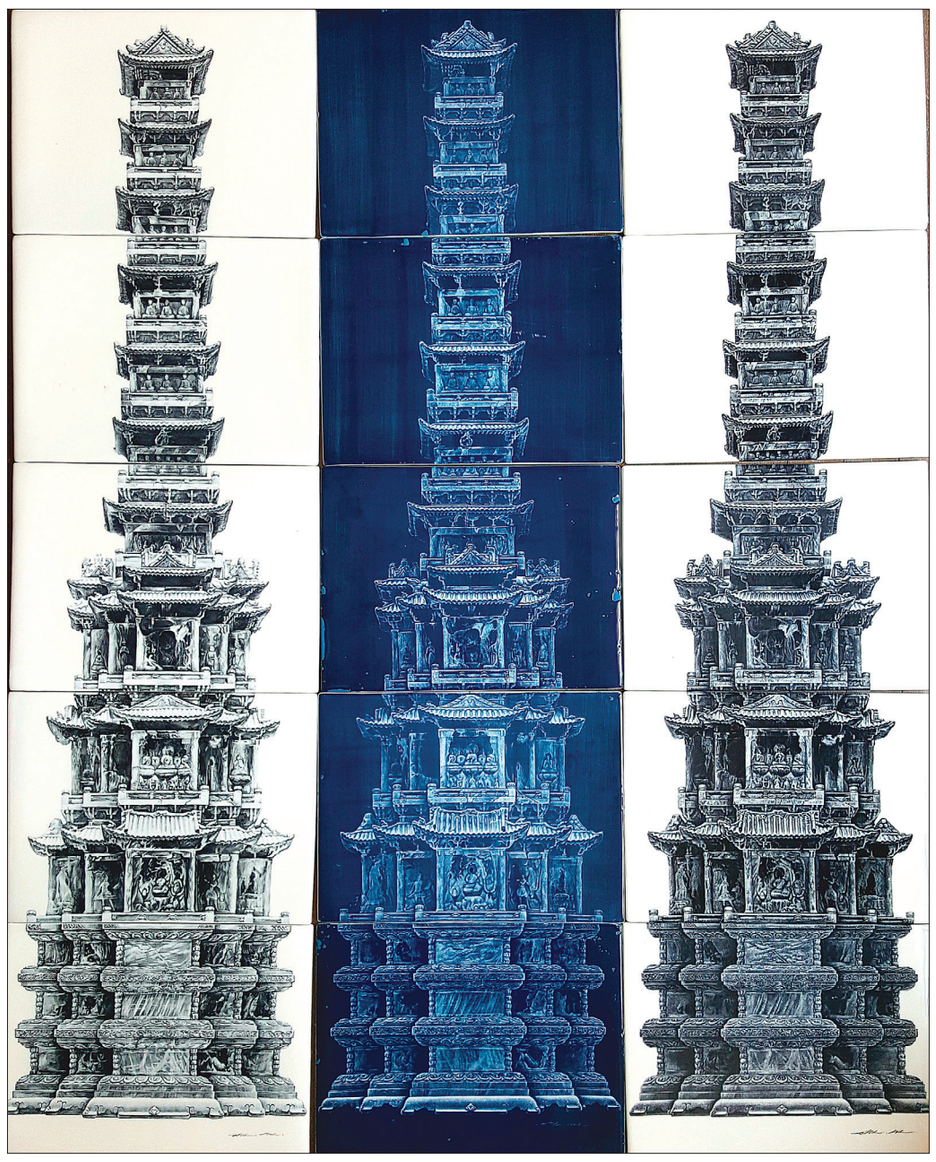
최 작가는 작품의 소재를 사진으로 찍기도 하고 종이에 연필 스케치로 작품을 준비한다. 그리고 뾰족한 도구로 물감을 바른 도판을 긁어 형체를 묘사한다. 가는 선들을 겹겹이 그어 원하는 형태와 질감을 표현하는데 수백에서 수만 번의 선들이 겹쳐져 하나의 작품이 된다. 완성된 그림은 유약을 입혀 고온의 가마에서 구워진다.

최 작가는 "도자회화는 가마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는다. 가마에 넣었던 작품들이 뜻하지 않은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이번 전시의 작품들은 힘들게 준비한 만큼 애착이 많이 간다. 우리 문화재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예술성과 이야기를 넣어 우리 문화재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를 관람객과 느끼고 싶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밖에도 최 작가는 '석가탑(310mm 원형백자 도판 1240℃ 산화소성 2021)', '다보탑(310mm 원형백자도판 1240℃ 산화소성 2021)', '경복궁 사신 청룡 · 현무 · 주작 · 백호(150200mm 백자도판 1240℃ 산소화성 2020)' 등의 작품을 통해 도자회화에서 느낄 수 있는 미학과 우리 문화재의 아름다움을 소개한다.

"우리에게 의미 있는 장소나 물건들, 나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어떤 것, 나는 이렇게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있어 소중히 간직하고 싶은 어떤 것을 그린다. 도자회화는 오랜 세월을 견디어내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간직하고 싶은 것을 그려 담기에 좋다. 나의 작업은 판화의 에칭기법을 도자회화에 접목한 세라칭(Ceraching · ceramic etching)기법으로 작업한다. 이 기법은 세밀하게 묘사하는 데 적합하여 장면을 기록하기에 용이하다. 나의 작업을 통해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 남겨지고, 사라져가는 것들이 고이 간직되기를 바란다."

최원선 작가는 중앙대학교 서양화학과 학사, 세종대학교 융합예술대학원 도자회화학과 석사 출신으로 일반회화와 도자에 대한 높은 이해력과 창작력으로 수준 높은 작품을 제작하여 도자회화 장르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1994년부터 네 모판화전, 제7회 미술세계대상전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이번에 첫 개인전을 개최한다. 1999년 미술세계대상전 판화부문 입선했다.



최원선 作, 경천사10층석탑_Ⅰ · Ⅱ · Ⅲ 1200×1500mm 백자도판 1240℃ 산화소성 2021.

조계사 불화모임 화엄회 회원전 개최



임은선 作, 영산회 괘불도 136×95cm 면본, 분채,안료,금박,금니

제 3회 일현문도 화엄회 불화전
경인미술관 5전시실 11월 3~9일
영산회 괘불도 등 불화 20여 점

조계사 불화그리기 모임인 화엄회(회장 최영군)가 11월 3일부터 9일까지 서울 경인미술관 제5전시실에서 '제3회 일현문도 화엄회 불화전'을 개최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준비해온 이번 전시는 최영군의 산신도, 임은선의 영산회 괘불도 등 회원들의 불화 20여 점을 선보인다.

최영군 회장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일현 이철승 교수님의 지도와 화엄회 회원분들의 끊임없는 용맹정진 그리고 부처님의 가피로 화엄회가 제3회 불화전시회를 열게 됐다. 2년여 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지친 회원들과 관객 대중들이 이번 전시를 통해 조금이나마 힐링이 되기를 바란다"고 이번 전시의 과정과 의미를 밝혔다.

불화를 그린다는 것은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일을 넘어선 신행과 수행의 한 방편이기도 하다. 특히 미술이나 불화 전공자가 아닌 일반 불자들에게 불화를 그리는 일은 간단치 않은 큰 원력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급, 중급, 고급반을 거치게 되어 있는 화엄회에서는 7년차가 되어야 여법한 불화 한 점을 그릴 수 있다. 이번 작품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1년 넘게 작업한 작품들로, 그 어느 때보다도 값진 수행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조계사 불화모임 화엄회는 2015년 3월 '오분향회(회장 최영군)'로 결성됐다. 2017년 제1회 불화 정기전을 개최했으며, 2018년 일현문도회 불화 특별전에 동참했다. 2019년 제2회 불화 정기전을 개최했으며, 2020년 모임의 명칭을 화엄회(회장 최영군)로 바꾸고 재출범했다. 2020년 5월 광주 마하보리사에서 불화 특별 초대전을 개최했다.

박재완 기자

송광사 불교굿즈 '빨간 목탁' 서울서 만난다

문화사업단, 11월까지 불교문화상품 특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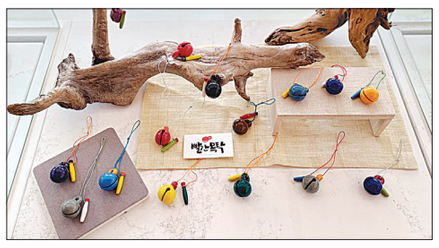
송광사 명물 불교굿즈인 알록달록 도자기 목탁이 '빨간 목탁'으로 브랜드화 해 서울서 만날 수 있게 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 이하 문화사업단)은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에서 자체 제작한 불교문화 상품 특별 전시를 개최한다.

첫 번째는 순천 송광사의 '빨간 목탁'이다. 전시는 10월 26일부터 11월 26일까지 한 달간이며, 문화사업단이 운영하는 템플스테이 홍보관에서 만날 수 있다.

탁구공만한 크기의 빨간 목탁은 송광사 주지 자공 스님이 손수 빚은 도자기 목탁이다. 유약 채색까지 마친 후 송광사에 마련된 도자기 가마에서 구워 만들었다.

사찰의 단청 등에서 볼 수 있는 오방색인 빨강을 비롯해 파랑, 노랑, 초록, 흰색 등 다양한 색깔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송광사 대중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빨간색을 브랜드화해 '빨간 목탁'이라고 명명했다.



템플스테이홍보관에서 전시되는 불교굿즈 빨간목탁. 송광사 주지 자광 스님이 손수 빚은 도자기 목탁이다.

문화사업단은 개별 사찰의 특별 전시를 통해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가치와 불교문화 정신을 알리고, 사찰에서 개발한 다양한 문화상품을 대중에게 알릴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사)대한불교 연조계종 종도모집

총무원장 지 명

사서실장 현월 호계원장 범정 포교원장 정각 문화원장 삼공
감찰원장 승훈 교육원장 법성 법사원장 덕행 기획원장 지호

부처님 지혜광명 시방세계 무명중생 온 누리를 두루 밝게 비추오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포교와 기도 불사에 전념하시는 대중스님께 社)大韓佛教 蓮曹溪宗에서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입종서류

①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③ 반명함판 사진 2매
④ 사, 암 내외 사진첨부
⑤ 입종 종도에게는 [승려증, 법사증, 전법사증] 발급
⑥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세무서 고유번호등록)

社)大韓佛教 蓮曹溪宗

총무원장 : 지명 혜광 HP : 010-7109-3111
총 본 산 : 경북 구미시 선산읍 선상동로 465-11 전화 : 054-481-3110 팩스 : 054-481-3123

문화관광부 등록 종단임 | 본종단 사업 : 사회복지 및 장애인사업, 장례문화사업, 요양원 등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